투데이 칼럼

'국제산악관광도시' 장수군, 달빛 철도 만나 한국 샤모니로…!

최 훈 식
장수군수

인구 8천 명 남짓, 프랑스의 작은 산악 도시 샤모니는 매년 11월이 되면 인파로 북적인다. 1만여 명의 러너가 UTMB(Ultra Trail du Mont Blanc) 대회 참여를 위해 이곳을 찾기 때문이다. 트레일 레이스의 메카이자 세계 최대규모인 이 대회는 몽블랑산맥의 계곡과 산 171km를 46시간 30분 안에 완주해야 하는데, 참여 조건을 충족하고도 '추첨'으로 대회 참여가 결정된다고 하니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샤모니의 다양한 국제 대회에 주민들은 파트너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참가자들은 숙박·식당·인프라를 소비하며 지역 경제에 선순환을 이어 나간다. 이 특별한 분위기에 매료된 세계 각지의 청년들은 속속 정착하기도 한다.

1924년 동계올림픽과 1960년 동계 유니버시아드를 개최했던 만큼 기차와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이 산악 레포츠 관광객들을 이곳으로 모이게 한다.

장수군은 75%가 해발 500m 이상인 고원 지역으로 도심의 산들이 개발로 훼손될 때 발전에서 한발 비켜난 덕분에 역설적으로 천혜의 청정 자연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동서남북 모두 산악이 중첩돼 산악관광 발전에 그야말로 최적화된 곳이다.

실제 작년 장안산 일원에서 개최된 '제2회 장수트레일레이스'에 1천여 명의 러너들이 참여해 아름다운 풍광에 매료됐다. 올해는 일명 '장수 트레일 빌리지 시즌' 동안 4천여 명이 장수의 산과 계곡, 능선을 따라 달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장수군은 최근에 깨끗한 산을 강점으로 '국제산악관광도시'를 미래 전략으로 설계하고 있다. 축제 위주의 관광에서 탈피해 상시 방문객을 유지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도심에서 떨어져 자연에서 휴식하고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관광 상품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트레일레이스를 테마로 빌리지를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한국의 '샤모니', 트레일레이스의 메카로 만들고 싶다. 지지계곡에는 산악자전거 레저시설 거점 공간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동호인은 물론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들고, 무령고개 일대를 산악관광 중심지로 활성화한다.

그 밖에도 백두대간 산림 정원과 메타세쿼이아 명품길 조성사업으로 산악 인프라 확대에 박차를 가해 다양한 산악 레포츠를 통한 건강하고 쾌활한 도시를 그려내고자 한다.

'국제산악관광도시' 장수군은 '달빛철도'와 만나 마침내 잠재력을 꽃 피울 예정이다. 달빛철도 개통 시 광주와 대구의 중심에 위치한 장수군은 남부거대경제권의 중심지로 부상하며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는 데 혹자는 경유 노선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지라도 0과 1의 차이만큼이나 미래 기회 측면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용산-광주송정·서울-동대구 KTX를 통해 수도권에서 장수를 찾을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다.

철도 접근성의 향상은 자연스럽게 생활인구 증대로 이어져 산악관광 분야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할 수 있고, 이는 장수군을 미래산업특별시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핵심 기반으로 단단하게 자리잡으리라.

장수군은 할 수 있는 걸 더 잘하고, 해오던 것을 더 발전시키려고 한다.

철 따라 유행하는 아이템을 따라가다간 고유한 잠재력과 특색을 잃기 마련이다. 사시사철 청정한 장수의 산을 달빛 철도를 따라 남부권 주민들은 물론 수도권 시민까지 찾아 달리고, 힐링할 수 있는 '성지'가 되길 바란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나발니, 잊지 않겠습니다"

18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한 여성이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47)의 죽음을 애도하며 '잊지 않겠다'라고 쓰인 손팻말을 놓고 있다. 나발니는 지난 16일 수감 중이던 러시아 최북단 시베리아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제3교도소에서 갑작스레 사망해 러시아인들에게 충격을 줬다. 그의 시신에서는 멍 자국과 심폐소생술(CPR)의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회의 추진회의서 악수하는 일-우크라 총리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가 19일 도쿄의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인협회) 회관에서 열린 일-우크라이나 경제회복 추진회의에 참석해 데니스 시미할 우크라이나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시미할 총리와 함께 농업, 에너지 기반 시설 등의 분야에서 일본과 우크라이나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켜봤으며 우크라이나 경제 안정을 위한 장기적 지원 제공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 설

도내 어느 지자체 관광사업

도내 어느 지자체의 관광개발 사업이 파국으로 치달았다. 400억 대 이 사업은 막대한 자금을 '프로젝트파이낸싱' 이른바 PF 대출을 통해 조달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받은 대출을 지자체가 전액 보증을 서면서 결국 시민이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레고랜드 사태와 비슷하게 상황이 전개되면서 자본시장에 소용돌이가 될 가능성까지 거론돼 파장이 우려된다. 해당 지자체 관광용 모노레일은 재작년부터 시내 주요 관광지들을 누볐지만, 사업은 부진했고 결국 운영은 중단됐다.

지자체가 6년 전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로 하고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며 추진한 400억 대 관광개발 사업은 참담하다. 문제는 사업비를 어딘가에서 조달했다는 사실이다.

민간 사업자가 사업 계획을 담보로 한 'PF대출'로 끌어온 돈은 405억 원에 달한다. 지자체가 전액 빚보증을 섰는데 재작년 취임한 지자체장이 "독소조항"이라며 약속을 뒤집었다.

돈을 빌린 민간 사업자마저 수개월 전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400억대 채권이 남았는데, 빚을 갚을 채무자와 보증인은 나 몰라라인 것이다. 재작년 국가적인 혼란으로 비화된 '강원 레고랜드 사태'와 흡사하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개발에 들어간 2,050억 원 규모의 PF 대출 전액을 보증했다. 이 가운데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되자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것이다. 파장은 의도치 않게 자금시장으로 번졌다.

지자체가 보증한 우량채권이 부실채권이 되자 채권시장이 공황에 빠져 민간기업의 돈줄이 줄줄이 막힌 것이다.

도내 해당 지자체의 관광개발사업 역시, 채권시장에 소용돌이가 될 수 있다. 400억대 시민 혈세를 빚 부담에 써야 할지 모르는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80대 홍순환씨 평생 봉사활동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일성아파트 홍순환씨(80)의 평생 봉사활동이 칭송을 받고 있다. 그는 일반봉사 38년(1961~1999)과 전문자원봉사 23년(2000~현재) 등 지 금까지 60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장수 출생인 그는 1961년 전북 도내 어느 오지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문맹 퇴치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섰다. 교통질서 선도는 물론 공중화장실 청소는 기본이다. 특히 천변쓰레기 치우기와 횡단보도 캠페인은 중요한 봉사다.

경로당 화장실 청소도 마다하지 않았다. 수지침 및 쑥뜸 전문자원봉사는 지금도 하고 있다. 이미 오래 전에 자격증도 획득했다.

웃음치료와 지압 마사지, 질병예방 응급조치, 질병 자가진단도 진행 중이다.

봉사 장소는 경로당을 비롯 장애인 복지관, 요양병원, 노인대학, 방과후 학교, 청소년 선도, 교회(순결교육) 등이다. 일상이 바쁜 가운데 학업에도 정진했다. 방송대와 대한예수교총신대, 선문대 등에서 교육학 석사와 박사를 수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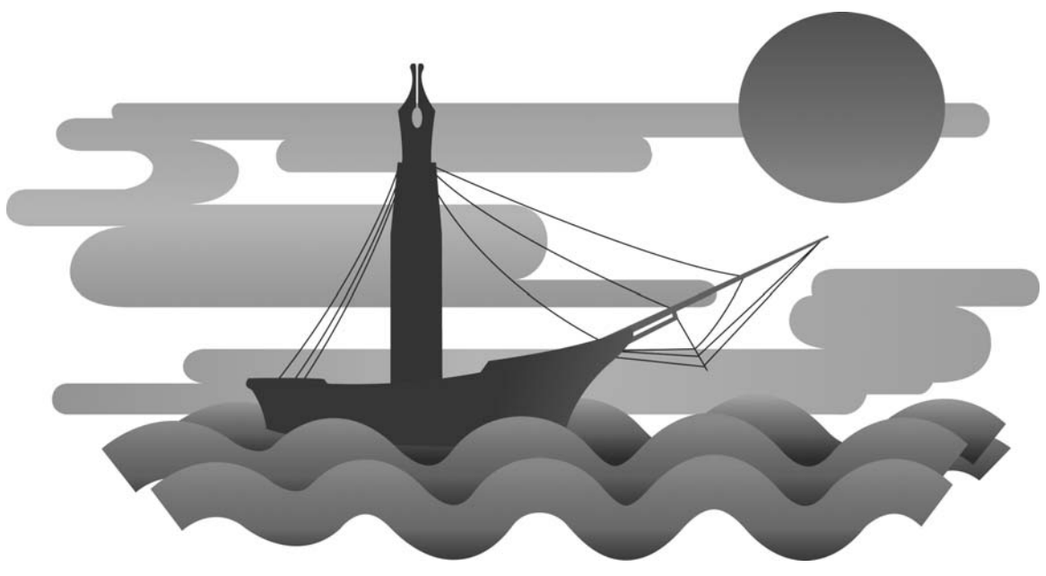
1994년 참사랑운동협의회 90개 단체 발대식에서 참사랑 봉사왕 총회장에 추대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36년간의 목회 그리고 기독교 종합뉴스(이단척결) 논설위원을 지냈다. 세계일보 아프리카 통신원과 조사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도 전북 자원봉사 쑥뜸회장, 웃음치료사 강사, 대체의학강사(대한노인회), 주례협회장(다문화 봉사주례), 민족순결운동본부 전북공동대표, 소말리아 아프리카 후원회장 활동을 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한국 명인 대상, 전북원로 봉사 대상, 전주시민모범 공로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는 한국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조국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버지와 약속 등이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